

국어 표현에 대한 초등학생의 쓰기 특성 및 발달 고찰*

박태호 · 강병륜 · 임천택 · 이영숙**

〈 차 례 〉

1. 서론
2. 이론 검토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학년별 및 요소별 분석
5. 연구 요약 및 성과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쓰기 결과물에 나타난 국어 표현¹⁾ 능력을 진단하여 교육적 처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바람직한 쓰기 교육의 전제 조건 중의 하나가 ‘진단’과 ‘처방’이다. ‘진단’이란 발달 수준별로 개별 학습자가 직면한 쓰기 저해 요소를 발견하는

* 이 논문은 2003년 국립국어연구원의 연구 용역 의뢰로 연구되었음.

** 박태호,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강병륜,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임천택, 공주교육대학교 강사.

이영숙, 공주교육대학교 강사.

1) 본고에서 ‘국어 표현’의 의미는 글자 쓰기(글씨 쓰기, 철자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쓰기 등), 낱말 쓰기, 문장 쓰기, 문단 쓰기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글의 의미 부분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자나 특정 단위를 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것이고, '처방'이란 이러한 저해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문가인 초등학교 교사라면 초등학생의 학년별 쓰기 발달 특성(상, 중, 하 수준)에 비추어 학생의 작품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상' 수준의 학생에게 '상' 수준에 해당되는 처방을, '중'이나 '하' 수준의 학생에게는 각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처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발달 측면에서 보면, 개별 학습자마다 쓰기 발달 특성과 그에 따른 저해 요소가 다르다. 해당 학년의 발달 특성에 비추어볼 때에 내용 생성하기가 더 부족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내용 조직하기가 더 부족한 학생이 있고, 초고쓰기가 더 부족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다듬기나 고쳐쓰기 능력이 더 부족한 학생이 있다. 만약 학습자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과정중심의 절차에 따라 획일적으로 수업을 한다면, 중하위권 학생의 학습결손 누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국어 표현에 관심을 두고 집중 분석하였다. 결과중심의 접근법을 거부하고, 과정중심의 접근법을 수용한 제7차 쓰기 교육과정이 쓰기 기능이나 전략은 중시하였지만, 정작 초등학교 쓰기 능력의 기초 요소가 국어 표현 요소를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의 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국어 표현 관련 발달 특성을 짚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이론 검토

2.1. 초등학생의 쓰기 발달에 대한 견해

학생들의 쓰기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제에서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쓰기 발달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이다. 쓰기 발달에 관한 정보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어떠한 관점과 기준으로 학습 필자와 그들이 쓴 글을 해석하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쓰기 교육에서 발달을 논의할 때 그 범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쓰기 발달을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범주이다. 이는 쓰기 발달을 사회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 간주하고, 쓰기 발달을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적응 능력의 향상으로 간주한다. 또 하나는 쓰기 발달을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범주이다. 이는 쓰기 발달을 개인의 성숙이나 성장으로 인한 결과로 간주하고, 쓰기 발달을 '개인의 쓰기 기능'의 성장으로 설명하는 범주이다. '저 사람은 글을 잘 쓴다'는 식의 평가는 바로 이러한 발달 수준을 드러내는 예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쓰기 발달을 특정 장르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범주이다. 쓰기 발달을 유사한 장르의 반복 결과로 간주하며, 쓰기 발달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장르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이다.

국어 표현의 발달에 대한 견해는 피아제의 주장에서 일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전조작기(4-7세)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의한 표현 단계로 필자는 자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조사와 같은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요소를 빠뜨리는 글을 많이 쓰게 된다. 그리고 그림과 글자의 섞어 쓰기가 나타나며 구어의 특성을 지닌 문장 형태를 구사하기 시작한다. 구체적 조작 단계(7세-11세)는 어떠한 행위가 사물에 작용하는 방식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로서 부분적으로 한 개념을 다른 개념과 관련짓고, 분류하고, 인과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글씨 쓰거나 언어의 기계적인 측면에 기능적 숙련이 부족한 단계이다. 형식적 조작기(11세 전후)는 개념적 조작을 할 수 있는 단계로 학생들은 언어의 기계적 측면에 대한 기능이 거의 자동화되어 의미나 구조를 의식하며 글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알렌 등(Allen & Carr, 1989)도 언어 표현과 관련한 쓰기 발달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는 피아제의 언어 발달 양상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어린이들은 유치원 취학 연령이 되면 글자나 낱말을 소리나는 대로 쓰거나

다양한 형태로 써 보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1학년 말 쯤에 맞춤법 기능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2학년 때까지 어린이들은 쓰기를 위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쓸 내용을 생성한다. 그리고 2학년 말 쯤에 독자를 조금씩 의식하는 쓰기를 시작한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 되면 의미와 문법적인 고려, 소리에 대응하는 문자 규칙 등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시공간에 따라 학생들의 쓰기 특성이나 발달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두 사람의 다소 상이한 연구 결과는 이를 반증한다. 즉 기존 이론으로 우리 학생들의 쓰기 결과물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2. 국어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나누어 보면 지식, 전략, 기능, 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국어 표현은 지식 및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쓰기에 필요한 지식으로는 사회·문화적 지식, 내용 지식, 담화 지식(과제 지식, 언어 지식), 초인지 지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언어 지식이 국어 표현과 직접 관련이 된다. 언어 지식이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및 문단 구성과 관련된 지식이다. 또한 쓰기에 필요한 맞춤법 기능, 글자 쓰기 기능, 구조화 기능 등은 국어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쓰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이라는 점에서 초등학교 쓰기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2.3. 쓰기 텍스트 평가 방법

2.3.1. 총체 평가법(holistic assessment)

총체 평가법은 쓰기 텍스트를 전체적인 인상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평가 방법이다. 총체적으로 평가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하나의 평가 척도를 다른 유형의 텍스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 그러나 특정 텍스트가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평가 결과 정보를 교수·학습에 송환하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여 송환을 제공해 줄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수·학습에 대한 정보 추출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보다는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총체적인 쓰기 능력의 성장 정도나 성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채점자가 많은 분량의 텍스트를 평가할 경우에 유리하다. 총체 평가법은 평가 척도가 요약된 형태로 제시되므로 평가자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할 경우 주관적인 인상에 의한 평가가 되기 쉬우므로 사전에 평가자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2.3.2 분석 평가법(analytic assessment)

분석 평가법은 디드리히(Diederich) 등에 의하여 제시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유창성보다는 텍스트를 하나 하나의 구성 요소를 따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평가 방법이다. 분석 평가법은 텍스트의 질을 각 요소로 나누어 세밀하게 평가함으로써 총체 평가법의 평가 결과 정보에 대한 포괄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결과 정보를 교수·학습에 송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지식이나 전략의 탐구에 초점을 두는 평가, 학습이 일어났는가를 따지는 평가, 평가 결과 정보의 구체적인 송환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 평가법의 개발자인 디드리히 등은 300여 편의 글을 몇 명의 평가자가 무작위로 나누어서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그러한 점수를 산출한 기준을 평가자 마다 기술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텍스트를 평가하는 데 고려된 기준 요소들이 내용, 조직, 어휘 사용, 표현력, 맞춤

법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텍스트나 언어 기능은 각 요소별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분리 평가 자체가 자칫 하면 고립적인 기능 평가로 전락하여 실제의 쓰기 능력을 대변해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각 평가 요소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 사람이 많은 작품을 평가할 경우에는 부적절한 방법이다. 반면에 개별 학습자의 쓰기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용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1학년 30명, 2학년 30명, 3학년 30명, 4학년 30명, 5학년 30명, 6학년 30명이 각각 한 편씩 산출한 쓰기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쓰기 특성과 발달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하여 동일한 과제를 전 학년에 동시에 제시하여 결과물을 수집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쓰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 작용 요인을 최대한 통제하였고, 장르는 특정 장르 하나로 한정하였다. 국어 표현의 문제는 장르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특정 과제의 분석 결과로도 일반적인 양상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석에서는 쓰기 특성과 발달을 필자가 드러낸 지식이나 기능의 적용 결과에 초점을 두면서도 교육과정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쓰기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학생들의 쓰기 발달과 변화를 읽어야 하고,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변인이나 쓰기 변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제는 우리나라의 4계절을 일 년 내내 여름만 계속되는 나라의 어린

이들에게 알리는 과제였다.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화제는 각 학년 수준에서 모두 수용이 가능한 화제로 선정하였다. 교사가 과제를 어떻게 안내하느냐에 따라 학년 간 텍스트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2일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과제를 안내하고 결과물을 수집하였다.

3.2. 분석 내용 및 분석 방법

평가 요소는 언어 사용 단위에 따라 글자 쓰기, 낱말 쓰기, 문장 쓰기, 문단 쓰기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글자 쓰기는 철자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이 세부 평가 내용이다. 낱말 쓰기는 바른 낱말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여기서 바른 낱말이란 표준어를 의미하며, 낱말을 적절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문맥에 알맞은 낱말을 적절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다. 문장 쓰기는 문법에 맞고 명확한 문장을 썼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문법에 맞는 문장이라는 것은 한국어의 어순에 맞으며, 호응이 바르고, 연결이 자연스러우며, 꾸며주는 말이 적절하며, 어미를 바르게 사용하고, 높임 표현·시간 표현(시제)·사동이나 피동 표현·부정 표현 등이 바르게 쓰인 문장이다. 문단 쓰기는 주로 형식적 측면에서 문단을 적절하게 나누고 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표 3-1>은 국어 표현에 관련된 평가 요소와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 국어 표현에 관련된 평가 요소와 세부 내용

평가 요소	세부 내용
글자 쓰기	• 글자를 맞춤법에 맞게 썼는가? •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였는가? • 문장부호를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낱말 쓰기	- 표준어를 사용하였는가? - 문맥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였는가? - 동사, 형용사의 활용을 바르게 하였는가? - 조사를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문장 쓰기	- 문장을 어순에 맞게 썼는가?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바른가? - 문장의 의미가 명료한가? - 문장 성분 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 꾸며 주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 문장의 연결 어미와 종결 어미를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 시간 표현(시제)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 사동이나 과동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 부정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문단 쓰기	- 문단 나누기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 문단의 내용을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 지시어를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어를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 문단의 첫 부분을 바르게 들어 썼는가?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학년 간 쓰기 특성과 발달 특성을 파악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므로, 쓰기 결과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평가법을 적용하였다. 각 평가 요소별로 점수의 범위는 상, 중, 하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세 단계 이상 세분하는 것이 언어 수행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고, 세분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별 이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질적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각 학년별로 텍스트를 상, 중, 하의 수준으로 나누고 그 수준을 가장 대표할 만한 텍스트를 발췌하여 채점 기준과 평가자의 주석을 기초로 하여 평가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질적 자료는 양적 자료에 대한

근거로서 뿐만 아니라 쓰기 특성과 발달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4. 학년별 및 요소별 분석

국어 표현 영역의 환산 평균 점수(전체를 100점 만점으로 하였을 때의 평점, 이하 동일)를 비교하여 보면 글자 쓰기, 낱말 쓰기, 문장 쓰기, 문단 쓰기의 점수는 각각 67.28점, 73.38점, 88.73점, 61.40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장 쓰기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단 쓰기와의 점수 차는 27.33점이다. 그리고 학년 간 가장 많은 점수 차이를 보인 요소는 낱말 쓰기로 1학년과 6학년이 무려 32.75점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학년 간 가장 적은 점수 차이를 보인 요소는 문장 쓰기로 1학년과 6학년이 15.06점의 차이를 보였다. 각 요소별로 학년별 평균 합계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각각 <표 4-1>과 같다.

<표 4-1> 국어 표현에 관련된 평가 요소별 학년별 평균

학년	평균(환산 평균)			
	글자 쓰기(9)	낱말 쓰기(12)	문장 쓰기(30)	문단 쓰기(15)
1학년	4.51(50.11)	6.23(51.92)	24.74(82.47)	7.38(49.20)
2학년	5.58(62.00)	8.67(72.25)	26.61(88.70)	8.57(57.13)
3학년	6.15(72.33)	8.90(74.17)	27.71(92.37)	9.37(62.47)
4학년	6.38(70.88)	9.20(76.67)	27.05(90.17)	9.77(65.13)
5학년	6.70(74.44)	9.51(79.25)	27.43(91.43)	9.35(62.33)
6학년	7.09(78.78)	10.12(84.33)	27.63(92.10)	10.68(71.20)
합계 평균	6.07(67.44)	8.77(73.08)	26.86(89.53)	9.19(61.27)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낱말 쓰기의 발달이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문장 쓰기의 발달이나 변화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국어 표현에서 문장 쓰기, 낱말 쓰기, 글자 쓰기, 문단 쓰기의 순서로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은 쓰기에서 문장 쓰거나 낱말 쓰기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상대적으로 글자 쓰기와 문단 쓰기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학년별, 요소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1. 학년별 분석

4.1.1. 1학년

1학년의 요소별 환산 평균 점수는 글자 쓰기, 낱말 쓰기, 문장 쓰기, 문단 쓰기가 각각 49.56점, 51.58점, 77.07점, 49.27점으로 나타났다. 문장 쓰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문단 쓰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점수의 차는 27.80점이다.

문장 쓰기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은 학생들의 글이 대부분 몇 문장 되지 않는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문장들 역시 단문이 많아 어순이나 호응, 의미 등에 거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낱말 쓰기는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과 조사의 사용이 특히 많이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맥에 알맞은 낱말의 사용 역시 아직은 서툰 상태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문단 쓰기이나 글자 쓰기 역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낮은 점수를 보인다.

글자 쓰기의 점수가 낮은 것은 요즘은 대부분 한글을 익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나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에 대한 교육은 아직까지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한글을 익혔다고는 하나 이는 아직 저급한 수준의 한글 익히기이기 때문이다. 맞춤법은 구어와 문어의 차이나 문법에 대한 인식과 어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 것이다.

문단 쓰기의 점수가 낮은 것은 학생들이 문단에 대한 개념조차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단은 구어에는 없는 문어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글은 대부분 대어섯 문장밖에 안 되는데 처음의 인사말이나 자기소개, 마지막의 끝인사를 빼면 본문은 한두 문장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이들 한두 문장으로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을 갖춘 문단을 구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4.1.2. 2학년

2학년의 요소별 환산 평균 점수는 글자 쓰기, 낱말 쓰기, 문장 쓰기, 문단 쓰기의 평균 점수는 각각 61.89점, 73.42점, 88.73점, 57.13점으로 나타났다. 문장 쓰기의 평균 점수가 점으로 가장 높고, 문단 쓰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는 31.60점이다.

글자 쓰기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의 사용에 모두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많이 보이며, 띄어쓰기는 띄어 쓴 것인지 붙여 쓴 것인지 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낱말 쓰기에서는 표준어와 문맥에 알맞은 낱말의 사용, 형용사의 활용에 대한 오류가 많았다. 예를 들면 '가르쳐 줄게요'를 '아르켜줄 께요'로, '덥고'를 '뜨겁고'나 '더우고'로 쓰는 것이다. 문장 쓰기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 단계의 학생들이 의미를 문장 단위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 쓰기에서는 문장 호응과 부정문 사용에서 특히 오류가 많았다. 예를 들면 '겨울은 얼어죽는 거입니다'와 같이 호응이 깨진 문장 형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별로 몰르지만'과 같은 부적절한 의미 연결로 된 부정문이 많았다.

문단 쓰기에서는 문단 나누기와 문단 들어 쓰기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 문단 들어 쓰기와 문단 나누기를 하지 않은 글이 대부분이었다.

4.1.3. 3학년

3학년의 요소별 환산 평균 점수는 글자 쓰기, 낱말 쓰기, 문장 쓰기, 문단 쓰기가 각각 72.33점, 74.17점, 92.37점, 62.47점으로 나타났다. 문장 쓰기의 점수가 가장 높고 문단 쓰기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는 29.90점이다.

글자 쓰기에서는 학생간의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 부호에 대한 기능이 오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착된 학생이 있는가하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오류를 드러내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익숙한 낱말이나 쉬운 낱말과 기본 문장 부호에 대한 오류는 많이 줄었다. 예를 들면 ‘돛아나지(→돛아나지)’와 ‘뜨꺼운(→뜨거운)’, ‘여름 밖에(→여름밖에)’와 같은 오류가 그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환경에서의 언어 사용 양상이 가끔씩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온점이나 느낌표를 사용해야 할 곳에 물결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낱말 쓰기에서는 비표준어의 사용이나 낱말 뒤에 붙여 쓰는 조사 사용의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먼저(→먼저)’와 ‘썰매타기, 눈사람 만들기 등에 다양한 놀이’(→썰매 타기, 눈사람 만들기 등의 다양한 놀이)와 같이 쓰는 것이다.

문장 쓰기에서는 ‘봄은…… 따뜻한 날씨야(→‘봄은…… 따뜻해)’와 같은 문장 호응이 잘못 사용된 경우가 특히 많았다.

문단 쓰기에서는 여전히 문단 구분과 문단 들어 쓰기 오류가 거의 대부분의 글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3학년 수준에서도 맞춤법이나 문장 부호의 사용과 같은 쓰기 기초 기능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초 기능은 단지 한두 차시를 학습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4.1.4. 4학년

4학년의 국어 표현 요소별 환산 평균 점수는 글자 쓰기, 낱말 쓰기, 문장 쓰기, 문단 쓰기가 각각 71.44점, 78.67점, 90.23점, 65.13점으로 나타났다. 문장 쓰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문단 쓰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는 25.10점으로 나타났다.

글자 쓰기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로는 ‘입게 되(→돼)’, ‘찾게 되(→돼)’, ‘내리쬐서(→내리쬐어서, 내리쬐서)’와 같이 이중 모음에 대한 표가 오류가 많았다. 띄어쓰기에서는 ‘다음계절은(→다음 계절은)’, ‘한점(→한 점)’, ‘알수(→알 수)’와 같이 지시어, 불완전 명사, 조사의 띄어쓰기 오류가 많았다. 그리고 문장 부호에서는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온점이나 반점 대신에 물결 표시로 대신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낱말 쓰기에서는 문맥에 적절하지 않은 낱말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파란 새싹이 피고(→파란 새싹이 돋아나고)나 ‘햇빛이 쨍쨍(→햇볕은 쨍쨍)’과 같은 낱말의 사용이다. 문장 쓰기에서는 문장 호응이 안 되거나 의미의 중복이 많았다. ‘여름은 날씨가 너무 더운날이라(→여름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나 ‘그 중에서도 먼저 봄은, 봄이 되면, 나비, 꽃, 벌 등이 많이 있어(→봄에는 나비 꽃, 벌 등이 많이 있어)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

문단 쓰기에서는 문단 나누기와 문단의 첫 부분 들여 쓰기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단을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으로 구성하기와 지시어의 사용, 접속어의 사용은 이전 학년에 비하여 눈에 띄게 늘었다. 꽤 향상되었다. 문단을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으로 구성하기는 4학년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으로, 이에 대한 지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학생들의 문단 구성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용상으로는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이 있느냐 이를 문단의 형식으로 구분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았다.

4.1.5. 5학년

5학년의 국어 표현 요소별 환산 평균 점수는 글자 쓰기, 낱말 쓰기, 문장 쓰기, 문단 쓰기가 각각 74.44점, 79.25점, 91.47점, 62.73점으로 나타났다. 문장 쓰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문단 쓰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는 28.74점으로 나타났다.

글자 쓰기에서는 맞춤법의 경우 일부 어려운 한두 글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르게 사용하였고, 띄어쓰기는 불완전 명사나 복합어 띄어쓰기에 대한 오류가 많았고, 온점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낱말 쓰기에서는 문맥에 부적절한 낱말의 사용과 비표준어의 사용이 눈에 띄었다.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져 있지' (→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지)나 '그러냐구' (→ 그러냐고) 등이 그 예이다. 문장 쓰기에서는 역시 문장 호응의 문제나 조사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가 나타났다. 문단 쓰기에서는 여전히 문단의 구분과 문단 들어 쓰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전체를 한 개의 문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접속어나 지시어를 사용하긴 하였으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4.1.6. 6학년

6학년의 국어 표현 요소별 환산 평균 점수는 글자 쓰기, 낱말 쓰기, 문장 쓰기, 문단 쓰기가 각각 79.11점, 84.33점, 92.13점, 71.20점이고 전체 평균은 84.18점이다. 문장 쓰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문단 쓰기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는 20.93점으로 나타났다.

6학년 학생들은 글자 쓰기에서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우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두번째(→두 번째), 세번째(→세 번째)'와,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붙여 쓴 '긴잠(→긴 잠)'과 같은 일부 띄어쓰기를 제외하고는 오류가 거의 없었다. 반면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에서 여전히 많은 문

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날말 쓰기에서는 ‘채소가 열려’(→채소가 자라)와 같이 문맥에 부적절한 날말의 사용이 많았다.

문장 쓰기에서는 ‘우리는 그런 날씨가 되면 계절 이름을 여름이라고 하지’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가족들이 나들이 가기에 좋은 계절이지.’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장 쓰기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그 향상 폭이 작은 데 이는 문장 쓰기 능력이 이미 3학년 이후부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단을 나누어 쓰기는 하였으나 정확하게 문단을 나누어 쓴 학생은 전체의 2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여전히 전체를 한 문단으로 쓰거나 한 문장을 한 문단으로 쓴 경우가 발견되었다.

4.2. 요소별 분석

4.2.1. 글자 쓰기

글자 쓰기에 대한 학년별 환산 평균 점수는 1, 2, 3, 4, 5, 6학년이 각각 50.11점, 62점, 72.33점, 70.88점, 74.44점, 78.78점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학년은 6학년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학년은 1학년으로 그 점수 차는 28.67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보면 글자 쓰기는 학년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 향상된다. 특히 1학년과 2학년의 점수 차이는 매우 큰데, 이는 이 시기에 학생들의 글자 쓰기 능력이 비약적으로 신장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글자 쓰기의 학년별 발달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이 서툴고,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의 사용도 모두 미숙하다. 소리나는 대로 글을 쓰는 경향이 있으며, 말과 글의 차이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필순이 틀린 경우도 있고,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된 경우, 무슨 글자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초적인 글자 쓰기 부

분의 훈련이 부족하다. 2학년은 1학년에 비해 많은 향상을 보이지만 개개인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의 사용은 완벽하게 잘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글 전체에 걸쳐 문제를 보이는 학생이 있는 등 수준 차이가 심하다.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3학년은 2학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역시 2학년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수준 차이가 심하다.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의 사용이 전체적으로 틀린 학생이 여럿 있다. 4학년은 전 학년 가운데 글의 길이가 가장 길었다. 맞춤법과 문장부호를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으나, 띄어쓰기의 경우 전체적으로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 5학년은 4학년에 비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나아졌지만 문장부호의 사용에는 오히려 더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개인별 수준 차이는 좁혀졌다. 6학년은 5학년에 비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문장 부호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4.2.2. 낱말 쓰기

낱말 쓰기에 대한 학년별 환산 평균 점수는 1, 2, 3, 4, 5, 6학년이 각각 51.92점, 72.25점, 74.17점, 76.67점, 79.25점, 84.33점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학년은 6학년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학년은 1학년으로 그 점수 차는 32.41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보면 낱말 쓰기는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낱말 쓰기의 학년별 발달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표준어는 잘 쓰는 편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낱말이나 용언의 활용, 조사의 사용에서 오류가 많았다. 또 제시된 평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여 글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학생도 여러 명 있었다. 2학년은 표준어는 잘 사용하나, 용언의 활용에는 문제가 있다.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상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리나는 대로 적는 데서 발생한 오류들이 많았다. 그러나 1학년보다는 많이 좋아진 양상이다. 3학년은 1, 2학년보다 표준어의 점수가 낮다. 이는 사용하는 낱말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잘못된 낱말의 사용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 문맥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한자어를 정확하게 쓰지 못한 경우들이 보이고, 용언의 활용 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있었다. 4학년은 3학년보다도 표준어의 점수가 더 낮다. 그러나 문맥에 알맞은 낱말의 사용이나 용언의 활용, 조사의 사용은 약간 나아졌다. 5학년은 전 학년 가운데 표준어 점수가 가장 낮았다. 외계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용언의 활용은 바르게 하고 있으나, 조사의 사용은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다소 있다. 또한 설명을 길게 하려다 낱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6학년은 문맥에 알맞은 단어의 사용이나 동사, 형용사의 활용, 조사의 사용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으나 표준어의 사용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다.

4.2.3. 문장 쓰기

문장 쓰기에 대한 학년별 환산 평균 점수는 1, 2, 3, 4, 5, 6학년이 각각 82.47점, 88.70점, 92.37점, 90.17점, 91.43점, 92.10점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학년은 6학년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학년은 1학년으로 그 점수 차는 9.63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보면 문장 쓰기는 글자 쓰거나 낱말 쓰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점수가 계속 올라가다가 4학년에서 갑자기 점수가 낮아지고 이후 5, 6학년에서는 다시 점수가 올라간다. 문장 쓰기의 학년별 발달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5.82개의 문장을 사용하였으며, 총 39명 가운데 한 문장도 진술하지 못한 학생이 9명이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구어와 문어를 혼용해서 글을 쓴 경우도 있으며, 명사로 문장을 끝맺은 경우도 있었다. 2학년은 평균 9.25개의 문장을 진술하였으며, 백지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문장을 잘 완성하였다. 1학년에 비해 문장을 어순에 맞게 잘 진술하였고, 성분 간의 호응도 바르게 하였다. 3학년은 평균 16.31개의 문장을 진술하였다. 이는 5학년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문장 진술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제외하고는 3학년에 올라와서 문장 진술 능력도 확실히 좋아졌다. 하지만 문장이 주로 홑문장이어서 문장의 연결이나 꾸며주는 말을 찾기 어려웠고, 아직까지 높임, 시간, 사동, 피동, 부정 표현을 사용한 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4학년은 평균 19.11개의 문장을 써서 전 학년 중 가장 많은 문장을 진술하였다.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글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문장 쓰기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4학년이 되면서 겹문장으로 진술된 문장이 많아졌고, 꾸며 주는 말도 많이 사용되었다. 문장이 겹문장으로 되면서 성분간 호응이 바르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5학년은 4학년보다 적은 문장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6.45개의 문장을 사용해 글을 완성하고 있는데, 4학년보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나 문장의 연결을 바르게 한 아동이 많아졌다. 또한 문장의 어순을 바르게 쓰는 것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리고 가끔씩 높임, 시간, 사동, 피동 표현을 사용한 학생이 보이나,²⁾ 대부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도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6학년은 평균 17.05개의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학년에 비해 적은 수지만, 4, 5학년에 비해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바르게 하고, 문장의 의미를 명료하게 잘 진술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다른 요소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가끔씩 높임, 시간, 사동, 피동 표현을 잘못 사용한 경우가 보였다.

4.2.4. 문단 쓰기

문단 쓰기에 대한 학년별 환산 평균 점수는 1, 2, 3, 4, 5, 6학년이 각각 49.20점, 57.13점, 62.47점, 65.13점, 62.33점, 71.20점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학년은 6학년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학년은 1학년으로 그 점수 차는 21.93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보면 문단 쓰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체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나 5학년에서 일시적으로 점수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2) 1~3학년에서는 높임, 시간, 사동, 피동, 부정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표본으로 선정된 학급의 특성이나 학생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문단 쓰기의 학년별 발달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대여섯 문장 밖에 쓰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단 쓰기에 대해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학생들은 아직 문단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 글 자체가 매우 짧기 때문에 문단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줄을 바꾸더라도 전혀 의미 없는 줄 바꾸기를 하였다. 지시어, 접속어도 별로 쓰지 않았다. 2학년 역시 문단 구분과 들어 쓰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심 문장이 없이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글이 짧은 관계로 지시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학년은 전체 글을 하나의 문단으로 쓴 학생이 40% 가까웠으며, 문장마다 줄을 바꾼 경우도 15%나 되었다. 줄 바꾸기를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 접속어를 틀리게 사용한 경우는 없었으나 10% 정도는 접속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문단의 첫 부분 들어 쓰기는 전혀 되지 않았다. 4학년은 3학년보다 전체적으로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문장으로 한 편의 글을 쓴 경우가 많았으며 문장마다 줄 바꾸기를 한 경우도 있었다. 문장마다 줄 바꾸기를 한 경우는 대체로 문장이 짧고 내용이 부실하였다. 5학년은 문단 나누기는 4학년보다 약간 나아졌으나 다른 학년과 공통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문단으로 쓴 경우가 많았고, 문단 첫 부분 들어 쓰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접속어나 지시어의 사용법이 틀린 경우는 없으나 사용빈도가 낮았다. 6학년은 5학년보다 문단 나누기,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으로 구성하기, 지시어 사용, 접속어 사용, 문단의 첫 부분 들어 쓰기 모두 향상되었다.

5. 연구 요약 및 성과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의 설명하는 글에 나타난 국어 표현³⁾ 실태

를 학년별,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각 학년별로 상, 중, 하 수준을 대표하는 학생 작품을 각각 1편씩 선정한 다음, 글자, 낱말, 문장, 문단의 네 항목을 평가 요소로 삼아 초등학생의 국어 표현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학년과 2학년에서는 문장 쓰기, 낱말 쓰기, 글자 쓰기, 문단 쓰기의 순서로 국어 표현 관련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수준의 학생들은 글자를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경향이 있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 조사의 사용, 문단 나누기와 문단의 첫 부분 들어 쓰기 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은 1학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향상되었지만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다.

3학년과 4학년에서도 문장 쓰기, 낱말 쓰기, 글자 쓰기, 문단 쓰기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준의 학생들 역시 글자 쓰기와 낱말 쓰기 부분에서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 2학년과 비교해 보면 맞춤법과 문장 부호의 오류 양상은 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 3학년은 1, 2학년에 비해 표준어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하는 낱말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오류 빈도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문장 쓰기에서는 문장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으나 문장 호응 관련 오류도 여전히 많았다. 또 문단 나누기와 문단의 들어 쓰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과 6학년에서도 문장 쓰기, 낱말 쓰기, 글자 쓰기, 문단 쓰기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학년에 비하여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문장 부호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낱말 쓰기에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다 비슷한 낱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6학년의 경우에는 이전 학년에 비하여 문맥에 알맞은 낱말의 사용,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 조사의 사용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5, 6학년 모두 비표준어를 사용하거나 온점을 생략하는 상황이 눈에 띄게 늘었

3) 본고에서 '국어 표현'의 의미는 글자 쓰기(글씨 쓰기, 철자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쓰기 등), 낱말 쓰기, 문장 쓰기, 문단 쓰기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글의 의미 부분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자나 특정 단위를 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고,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컴퓨터 채팅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높임, 피동, 사동, 부정 등의 문장을 가끔씩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한편 6학년의 경우에는 문단 나누기,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으로 구성하기, 지시어 사용하기, 접속어 사용하기, 문단의 첫 부분 들어 쓰기가 이전 학년에 비하여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초등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문장 쓰기, 낱말 쓰기, 글자 쓰기, 문단 쓰기의 순서로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글자 쓰기와 문단 쓰기 기능이 문장 쓰거나 낱말 쓰기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낱말 쓰기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문장 쓰기의 변화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글자 쓰기는 학년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학년과 2학년의 점수 차이는 매우 큰데, 이는 이 시기에 학생들의 글자 쓰기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의 쓰기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과제에 대하여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국어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성장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이는 학년별 성취 기준이나 발달 척도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발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학년 학습자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고, 국어 표현 관련 쓰기 지도 방안이나 학습 자료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 방법이나 해석 방식을 보다 대규모의 연구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일반화시킨다면, 현장에 필요한 쓰기 평가 요소와 기준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05. 6. 27. 투고되었으며, 2005. 7. 13. 심사가 시작되어 2005. 7. 2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 국어 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도남(1997), "문제해결 중심의 작문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명완·이차숙(1999), "문식성의 개념, 발달, 사회적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박주영(1992),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태호(2000), "장르 중심 작문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원리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2000), 『장르 중심 작문 교수 학습론』, 서울: 박이정.
- 송명화(2003), "효율적인 문단 쓰기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현재·이재승(2000),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그 원리와 방법』, 서울: 박이정.
- 윤정옥(1997), "읽기와 쓰기의 통합에 의한 설명적 글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정하(2003), "텍스트 구조 분석을 통한 초등학생의 쓰기 발달 양상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진(2001), "후기 과정중심 작문 교육 이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이영희(1999), "협동학습을 통한 고쳐 쓰기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승(1999), "과정 중심의 쓰기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천택(1999), "작문 교육 연구의 문화 기술적 접근 원리," <한국어문교육> 9, pp.269-290, 한국교원대학교 어문교육연구소.
- 최현섭 외(1999), 『국어교육학개론』, 서울: 삼지원.
- 최현섭·박태호·이정숙(2000), 『과정 중심의 글쓰기 워크숍』, 서울: 역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Allen L. (1986), A Guide Curriculum Planning in English Language Arts, Wisconsin.
- Alexander, P. A., Schallet, D. L., & Hare, U. C. (1991), How researcher in learning and literacy talk about knowledg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1, 315-343. Department of Public Ins., ED 268-554.
- Anderson, R. S., & Speck, B. W. (2001), Using Technology in K-8 Literacy Classrooms, NJ: Prentice-Hall.
- Applebee, N. A. (1994), "Scaffolding", pp. 1054-1055.
- Berlin, J. A. (1988), "Rhetoric and Ideology in the Writing Class", College English 50, pp. 477-494.

- Cherryholmes, H. (1988), *Power and Criticism: Poststructural Investigations I in Educations*, 박순경 역(1998), 『탈구조 주의 교육과정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Cunningham, J. W. (1994), "Background Knowledge", In A. C. Purves, L. Papa & S. Jordan(Ed.),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s*, Volume I, pp. 115-119, IL: NCTE.
- Dobrin, S. I. (1997), *Constructing Knowledge: The Politics of Theory-Building and Pedagogy in Composition*, New State University Press.
- Ediger, M. (1991), "Philosophy of Writing Instruction", ED 336755.
- Faigley, L. (1992), *Fragments of rationality: Postmodernity and the subject of composition*, Pittsburgh University Press.
- Faigley, L. & Skinner, A. (1982), *Writers processes and writers' knowledge: A review of research*. Technical report No 6.
- Flower, L. (1993), *Problem-solving strategies for writing*, 원진숙, 황정현 공역(1998), 『글쓰기의 문제 해결 전략』, 서울: 동문선.
- Kellogg, R. T. (1994), *The psychology of writing*, Oxford University Press.
- Lawrence, D. P. (1999), "The Community as Text: Using the Community for Collaborative Internet Research", *English Journal* 89(1), pp. 56-62.
- McMahon, S. I., & Raphael, J. E. (1997), *The Book Club Conne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 Moll, L.C. (1990), *Vygotsky and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ivey, N. N. (1997), *The Constructivist Metaphor*. NY: Academic Press.
- Tompkins, G. E. (2000), *Teaching writing*, California State University Press.
- Yagelski, R. P. (1994), "The Context of Writing", In A. C. Purves, L. Papa & S. Jordan(Eds.),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s* I, pp. 528-529. IL: NCTE.

〈초록〉

국어 표현에 대한 초등학교의 쓰기 특성 및 발달 고찰

박태호 · 강병륜 · 임천택 · 이영숙

이 연구는 초등학교의 쓰기 결과물에 나타난 국어 표현 능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교육적 처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일한 과제의 글을 학년별로 30편씩 분석하였다. 분석 요소는 글자 쓰기, 낱말 쓰기, 문장 쓰기, 문단 쓰기의 네 가지였다.

1학년과 2학년에서는 문장 쓰기, 낱말 쓰기, 글자 쓰기, 문단 쓰기의 순서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수준의 학생은 글자를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철자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 조사의 사용, 문단 나누기와 문단의 첫 부분 들여 쓰기가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에 비하여 2학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다.

3학년과 4학년에서는 문장 쓰기, 낱말 쓰기, 글자 쓰기, 문단 쓰기의 순서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수준의 학생 역시 글자 쓰기와 낱말 쓰기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1, 2학년에 비하여 맞춤법과 문장 부호 오류 양상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바뀌었다. 3학년은 1, 2학년보다 표준어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용하는 낱말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잘못된 낱말의 사용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 학년에 비하여 문장 길이는 길어졌으나 문장 호응 오류가 여전히 많았다. 문단 나누기와 문단 들여 쓰기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5학년과 6학년에서도 문장 쓰기, 낱말 쓰기, 글자 쓰기, 문단 쓰기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학년에 비하여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문장 부호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그러나 설명을 길게 하려다 낱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6학년의 경우에는 이전 학년에 비하여 문맥에 알맞은 낱말의 사용,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 조사의 사용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5, 6학년 모두 비표준어의 사용, 온점 생략 등의 문제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컴퓨터 채팅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높임, 피동, 사동, 부정 등의 문장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었지만 정확하게 사

용하는 학생은 드물었다. 그리고 6학년은 문단 나누기,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으로 문단 구성하기, 지시어 사용, 접속어 사용, 문단의 첫 부분 들어 쓰기가 이전 학년에 비하여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초등학생은 전체적으로 문장 쓰기, 낱말 쓰기, 글자 쓰기, 문단 쓰기의 순서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쓰기에서 문장 쓰거나 낱말 쓰기 기능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상대적으로 글자 쓰기와 문단 쓰기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낱말 쓰기의 발달이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문장 쓰기의 발달이나 변화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글자 쓰기는 학년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학년과 2학년의 점수 차이는 매우 큰데, 이는 이 시기에 학생의 글자 쓰기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핵심어】 국어 표현 능력, 글자, 낱말, 문장, 문단

〈Abstract〉

**The Investigation on Quality and Development Related
with the National Language Expression in Writing of
the Elementary Student**

Park, Tae-ho · Kang, Byung-ryun
· Im, Cheon-taek, Lee, Young-sook

The research which it sees related with the national language expression of the elementary students and the outcome goods which it writes and it analyzed it evaluated. It provides information which is necessary to education handling the objective of the place where it put. From 1 grade until 6 grades grade 30 side it analyzed the writing of the subject which is identical especially. The analysis element wrote, the letter writing, word writing, sentence writing and a paragraph which relates with a national language expression it was four branch. The grade analysis and element analysis result with the afterwords are same.

From 1 grades, and 2 grades it appeared that the score is high in order the sentence writing, word writing, letter writing and a paragraph writing. The students of this phase there was a tendency that they write a letter in sound way. And they write remarkably appeared with the fact that it is insufficient, rules of spelling, spacing word, sentence code use, use of a verb or an adjective and a postposition, a paragraph it shared, forward writing of a paragraph. It compared in 1 grade and from 2 grades the individual differences with the fact that like this elements improve generally appeared a lot.

From 3grades, and 4 grades it appeared that the score is high in order the sentence writing, word writing, letter writing and a paragraph writing. The students of this phase letter writes as well with word the error which it writes was many. But 1, 2 grades and it tried to compare, it was exchanged with the fact that it is complicated from the fact that the error aspect of orthography and sentence

code is simple. 3 grades the standard word score appeared more lowly 1, 2 grades than. Like this aspect possibility of the word which it uses it increases rapidly and also the use of the word which goes wrong increases with the fact that. And it compared in previously grade, sentence length comes to be long, but error of the sentence response was many as ever. A paragraph dividing and forward writing of a paragraph was not especially improved.

From 5grades, and 6 grades it appeared that the score is high in order the sentence writing, word writing, letter writing and a paragraph writing. It compared in previously grade and generally the use of orthography or spacing word and sentence code got better. It sent explanation a but long and the case which uses a word repeat was many. To case of 6 grades it compared in previously grade, they improved in the eye the use ability of matching word in context, a verb or an adjective and a postposition. But the error of 5, 6 grade all nonstandard word use and the period omission increased. To case of the part student it uses a computer chatting language like that, it did. There are students part who use an honorific, a causative verb, a passive verb and the infinitive mood, but it was rare the student whom it uses accurate. And 6 grades are improved in the eye a paragraph it shared, forward writing of a paragraph, compose of a center contents and a supporting contents, indication word and conjunction use in previously grade to compare.

The elementary students acquired whole the score in order the sentence writing, word writing, letter writing and a paragraph writing. This result will be able to interpret with the fact that sentence writing and word writing is sufficient, but letter writing and a paragraph writing is insufficient relatively. And the advancement or change of the sentence writing is slow most, the advancement or change of word writing is big most to appear. Letter writing is improved gradually with the grade phase. Specially the score difference of 1 grades and 2 grades grows very. This is to seem students the ability of letter writing which it rapidly grows in this time. Result of this research sees that elementary school the instruction is important in low grade phase of elementary.

【Key words】 National language expression ability, spelling, word, sentence, paragraph.